

더 소싱 USA 서미트에서의 석학들의 강연 요지 <3/3>

◎ 세계 경제의 나갈 길

미국에서 시작된 이번 금융 위기는 아직 끝을 짐작조차 할 수 없으며, 세계 동시 불황의 모습도 보이고 있다. 세계 경제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더 소싱(The sourcing) USA 서미트(summit) : (cotton summit)’에서도 이 문제는 큰 테마가 되었다. 다음은 코튼 서미트의 마지막 강연으로서, 예일 대학 경영 대학원 교수(Yale 大學 經營大學院 教授) 제프리 E 가텐 박사의 강연 요지이다.

현재 세계는 바야흐로 금융 위기에 직접 부딪치고 있는데, 이 위기는 세계 경제가 변혁되는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앞으로의 세계 경제는 결론부터 말하면 비관적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고 있는 이상, 현재의 경제에 대한 역풍을 정면으로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까지 30년 동안 ‘무역을 확대하자, 금융을 자유화하자’라는 것에 대하여, 세계는 매우 포지티브(positive)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시발점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호의적인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먼저 미국의 현 상황을 분석해 보면, 금융 위기의 중심은 주택 금융이다. 이것은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제조업 생산액도 크게 떨어졌고, 고용 기회도 줄고 있다. 국가 채무가 격증하였다. 각국의 경제도 떨어지고 있다. 2008년 제3사분기에는 모든 선진국이 마이너스 성장이 되었으며, 이와 같은 일은 과거 40년 동안에 처음 보는 사태이다.

문제는 이 불황으로부터 회복되는 패턴이 ‘V형이냐, U형이냐 또는 L형의 어느 것이냐’ 하는 것이다. V형이란 바닥에서 빠르게 회복하기 시작하여 6개월에서 8개월 만에 완전히 정상화하는 패턴이다. U형은 바닥에서 회복으로 돌아서는 데에 좀 시일이 걸려 완전 회복하는 데에 1년 반에서 3년 걸리는 패턴이다. L형은 일찍이 일본이 경험한 것과 같이 바닥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지 못하고 오래 끄는 패턴으로, 일본의 경우 10년 이상 경제가 불황 상태가 되었다. L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재정 출동이 중요하다.

이미 중국에서는 제일 먼저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리 인하나 감세와 같은 모든 수단을 적극적으로 다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세계적 종합 보험 금융 회사인 AIG(American International Group Inc.)가 정부에 의하여 구제(救濟)되었는데, 이 경우는 긴급 사태의 제 1라운드에 지나지 않는다. 자동차 산업도 구제될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당연히 다른 업계도 같은 요망이 나올 것이다. 이들은 모두 차기 정권의 큰 과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보호 무역 주의가 강화될지도 모른다. 실제로 무역액은 줄고 있어, 1년 만에 반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되든지, 단기적인 관점과 중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먼저 이번 1년 내에 관하여 말하면, 신흥국이 세계 경제의 성장을 잠어지게 된다는 견해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더 현실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확실히 중국이나 인도는 약간의 회복을 보이겠지만, 그것이 세계 경제를 밀어 올리려면 쉽지 않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투자가 줄어들고, 중국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는 순풍이 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인프라(infrastructure : 整備)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세계(全世界)에서 41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는試算(試算)도 있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과제는 미국이 재정 적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현재의 미국은 비상(非常)한 재정 적자와 수입 초과 상태에 있다. 그래서 대량의 달러가 국제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이러한 과잉 유동성이 관리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이번 금융 위기의 근본 원인이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본격적인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 : 再構築)이 필요해진다. 그리고 이제부터의 경제 모델은 수출형이 되어야 한다.

다음에 글로벌화(global化) 하는 속도가 떨어질까 하는 문제가 있다. 이제까지 40년 동안은 경제의 글로벌화가 대단히 빨리 진행되어 왔는데, 앞으로의 50년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정권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정책을 만들 때에 두 가지 포인트에 주의하여야 한다.

하나는 세계 경제에 있어서 신흥국의 역할은 여전히 크다는 것이다. 현재 신흥국에서는

하이퍼(hyper : super보다도 더 높은 超越的) 도시화가 추진되고 있고, 뉴욕 규모의 도시가 매년 6개씩 생기고 있다. 그래서 이들을 기반으로 인프라(infra structuring) 정비와 금융 시스템이 회복되면 다시 세계 경제를 성장시킬 것이다.

또 하나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국제적인 협조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이번 금융 위기에 관하여, 일부에서는 수개월 지나면 회복할 수 있다는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황당한(crazy) 생각이다. 그 만큼 이번 사태는 뿌리가 깊고, 세계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문제이다. 그래서 워싱턴(Washington) DC에서 ‘금융 서밋 G20’이 개최되었는데, 거기서 지금껏 주장한 것을 토론하여야 했다. 미국의 경제 정책뿐 아니라 글로벌한 협조 체제하에서 필요한 수단을 모두 실행하여야 한다.

객관적으로 보면 현재의 정부는 불황에서 회복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시장의 재정비(再整備)도 추진되고 있다. 금융 시장은 수개월 후에는 재편될 것이다. 그러면서 점차 회복으로 가는 것이다. 원유 가격 하락은 순풍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도 있다. 앞으로 1년이면 새 정권에 대한 신뢰감도 나올 것으로 본다.

현재의 불황으로부터 회복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는데, 개인적인 견해로는 약 2년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이번 1년에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정책을 세워, 실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최악의 시나리오(scenario)는, 어중간한 대책으로 일시적으로 경제가 회복한 후에 다시 위기가 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위기 때마다 각국이 기업에게 자금을 투입하는 등 구제를 되풀이하게 되면, 머지않아 자본주의에서 떨어져 나가 버린다. 이것이 무역 정책에도 영향을 줘서, 최후에는 거버넌스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만다. 이러한 위험성을 언제나 의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